

자기연민의 늪

<단편설교>

우리는 종종 자신이 제일 불쌍하다. 이 감정은 관계와 신앙을 파괴하곤 한다. 자기연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?

본문 말씀

| 렘15:10~21

자기연민에 빠지는 이유

- 예레미야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, 현실은 힘들기에 자기연민에 빠졌다. 자기연민은 내가 겪는 현실과 누려야 마땅하다고 기대하는 것에 충돌에서 온다.
- 현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보다 고통에 취약하다. 우리는 안락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.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쌍하다.

자기연민의 특성

- 자기연민은 관계를 파괴한다. 예레미야가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이다.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다.
- 자기연민에 빠지면, 자신의 잘못은 괜찮은 것이 된다. 나는 불쌍하기 때문이다. 반면 상대의 작은 잘못은 불쌍한 나를 향한 더 큰 잘못이 된다..

자기연민에서 나오는 방법

- 옳은 길을 가며 기대했던 현실과 다른 현실로 자기연민에 빠졌을 때,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신다. 그리고 사랑의 자리로 다시 가라고 하신다.
- “내가 하겠다!”라고 말씀하신다. 여전히 돌아갈 현실에는 기대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내가 너를 언제든 구하겠다! 어떤 공격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신다.

한 줄 포인트

탄식은 하나님께, 사랑은 내 자리에서

소그룹 나눔

1.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언제인가요?
2. 하나님이 “속이는 시내”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다면 나눠 주세요.
3. 요즘 내 안의 억울함은 탄식에 가까운가요? 자기연민에 가까운가요?
- 4 이번 주에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? (원망은 하나님께 먼저/ 당연하던 것을 감사로/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기)

교회 소식

1. QT 말씀묵상

- 9월부터 ‘날마다 솟는 샘물(국제제자훈련원)’으로 말씀묵상을 합니다.
- 각 개인이 스스로 말씀묵상을 하는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다들 잘 참여해주세요.
- 오후예배 시간에는 개인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특강을 합니다.

2. 금요기도회 안내

- 금요기되는 ‘하나님의 성품 ’ 을 다루고 있습니다.
- 금요기도회는 8시 30분부터 있습니다. 많이 참여해서 같이 기도해요.

